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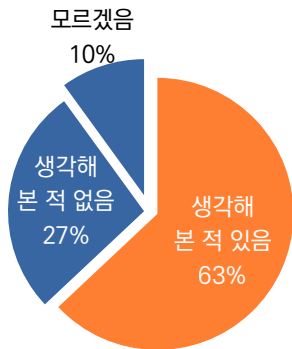


[한국인의 불행 인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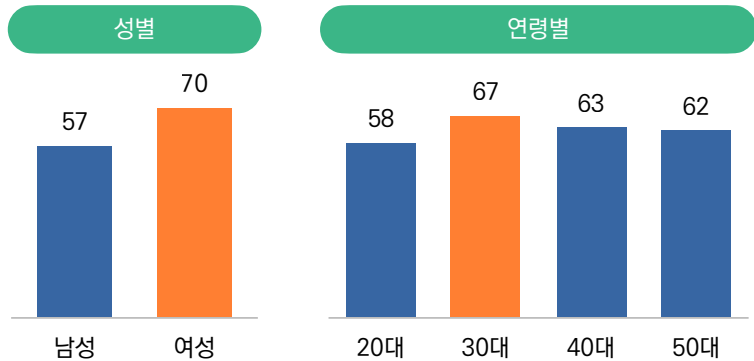
우리 국민 3명 중 2명 가까이, 내 삶 불행하다 느낀 적 있다

- 독일의 한 기자가 쓴 '한국인의 이상한 행복(2022)'이란 책은 한국인의 불행에 관한 보고서이다. 그렇다면 한국인은 정말 불행할까? 우리 국민 중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다.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63%로 우리 국민 3명 중 2명 가까이에 달했고, 남성(57%)보다는 여성이(70%), 연령별로는 30대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경험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.

[그림] 내 삶이 '불행하다'고 생각해 본 경험 (일반 국민)



[그림] 내 삶이 '불행하다'고 생각해 본 경험 (성/연령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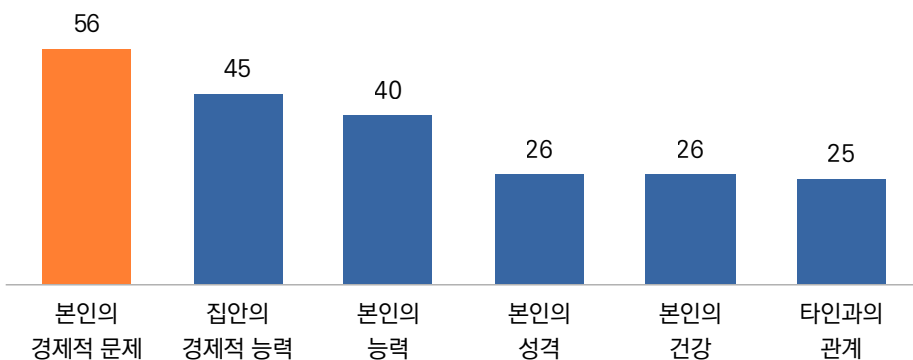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'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', 2023.07. (전국 19~59세 성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7.05.~07.07.)

내 삶이 불행한 이유, '경제적 문제' 가장 커!

-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'본인의 경제적 문제'가 56%로 가장 많았고, 이어 '집안의 경제적 능력' 45%, '본인의 능력' 40% 등의 순이었다. 삶의 불행 요인으로 국민 다수가 '경제적 문제'를 꼽았다.

[그림]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이유 (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경험자, 중복응답, 상위 6위, %)



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'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', 2023.07. (전국 19~59세 성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7.05.~07.07.)